

오사카-도쿄-교토
(식민지시대 조선인의 활동반경)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01~1932년(31세)
 - 서울 용산(효창동, 원효로) 출생.
 - 일본인 집단 거주지 용산(전기, 수도, 전차 등 첨단도시)에서 건축업, 목재상을 한 부유한 부친
 - 1911년 사립 문창학교(보통학교) 입학
 - 1915년 일본인 과자 가게, 약국 점원(일본어 능력)
- *1919년말, 일본인 34만6619명. 1923년 조선인의 일본어 해독능력 1.81%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19년 8월, 용산철도국 취직(승진, 월급 차별)
- 1924년 4월, 사직(4년 8개월 근무)
- 청년회 활동, 국세조사위원 활동
- 1925년 11월, 조카(17세)와 함께 일본행
- 오사카-일본 최대 공업도시(면방직, 기계공업). 재일 조선인 136,709명중 34,311명 거주.
일본인에 비해 임금이 싼 조선인 노동자 선호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26년 2월, 신일본인 '기노시타 쇼죠'가 되어, 오사카 가스회사 인부로 취업
- 간사이공업학교 야간부 입학, 병으로 중단
- 임금 차별로 부두 노동, 공장 직공 등 전전
- 1928.11.10, 교토에서 열린 히로히토 천황 즉위식 구경(교토역 60만 운집)갔다가 구금됨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신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기노시타 쇼조의 좌절
 - 27세, 이봉창 ' 나는 불행한 인간, 이태왕= 고종의 얼굴도 못보고, 조선역사도 모름... 천황의 얼굴을 보아야 진짜 일본인... '
 - 일제 경찰 검문으로 유치장에 구금된 후 '민족'의 발견, '나는 진짜 일본인이 아니구나'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29년 9월 도쿄행. 10월 24일 세계대공황
- 도쿄 거주 조선인 중 17000명 중 10000명 실업
- 새 이름 마쯔이 가즈오, 상점 점원, 외판원 등 전전
- 1930년 11월, 다시 오사카행
- 1930년 12월 6일, 일본 생활 5년 청산, 상하이행 '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서 차별 없는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고 싶어 '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상하이에서 일자리를 찾다
 - 영국 전차 회사 검표원 희망했으나, 실패
 - 일본인으로 속이고, 일본인 철공소에 취직
-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김구를 만나다
- * 1919년 4월 설립, 상하이 임시정부 현황
 - 1920년대 중반 이후 재정 곤궁, 좌우대립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31년 4월말경, 일본 천황 폭탄 살해 계획을 제안하다
 - 의열투쟁; '최소의 노력'으로 '최대의 효과' 노리는 투쟁방식->김구, 한민애국단
 - 1931년 9월 만주사변(1932년 만주국)
 - 1931년 12월 6일, 300\$(150엔) 거사자금, 수류탄 2발 마련
 - 12월 13일, 안중근의 동생인 안공근의 집에서 기념사진 촬영. 한민애국단 제1호 입단식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김구 '일을 맡기면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, 사람을 의심하면 일을 맡기지 않는다'
- 이봉창에게 손목시계를 사주고, 제2의 안중근이 되라
- 1931년 12월 17일, 영원한 작별 사진
<-무모한 계획인가? 개인의 희생인가?
- 12.17 상해 출발-12.19 고베 도착-오사카-12.22 도쿄(쓰바메 열차 시속 90k, 8h)
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1932년 1월 8일, 오전 8시 50분, 도쿄 야마노테선 하라주쿠역/신주쿠역/우에노역
- 11시, 요요기 연병장 관병식에 참석하는 히로히토 천황에게 수류탄 투척 폭살 계획
- 11시44~45분경, 천황 행렬 마차를 향해 수류탄 1발을 던졌으나, 위력이 약해서 실패. 현장에서 체포됨

* (배경식, 2015 <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> 휴머니스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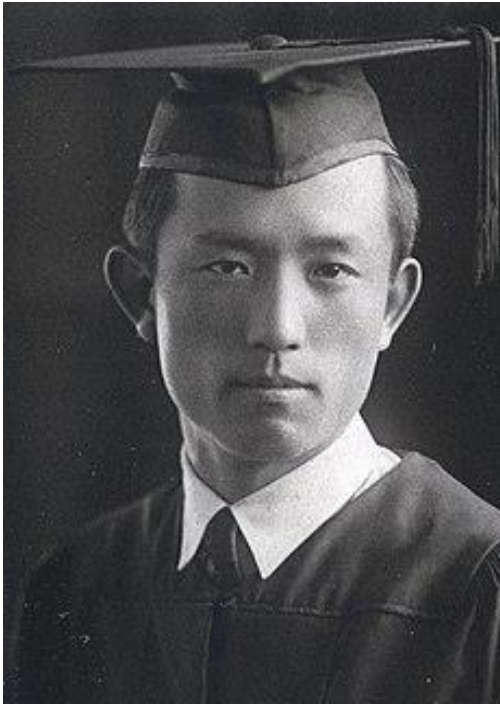


식민지 모던 보이 이봉창의 일생

- 대역죄로 두 번 공판(9월 16일 사형 구형, 9월 30일 사형선고)
 - 1932년 10월 10일 교수형 집행
 - 1946년 효창원 이장(고향으로!)
- ⇒ 쇠락해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기
- ⇒ 윤봉길의 홍커우 공원 의거 성공
- *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노동자 기노시타 쇼쥬는 어떻게 독립운동 청년 이봉창이 되었나?



윤동주/영화 동주(2016)



윤동주

- 1917~1945년(28세)
- 만주 지린성(길림) 연변 출생
- 명동학교, 평양 숭실중학교, 연희전문 수학
- 1942년 창씨개명(히라누마 도주 平沼東柱)과 일본 유학: 릿쿄대학 영문과->교토 도시샤 대학(기독교계열) 편입
- 1943년 체포,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(생체 실험, 수인번호 475번)
- 1945년 2월 16일 옥사



윤동주의 참회록

- 윤동주 유고시집, <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>(1948)
- 서시 "죽는 날까지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"
- "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인이 되기를 원한 게...", "앞장서서 나서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..."
- 송몽규(고종사촌, 신춘문예 산문 당선, 교토제대 서양사학과 입학)

윤동주의 참회록

- 송몽규-일본 군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, 아시아 해방전쟁에 대한 반대. 조선인유학생 징집령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계획(탈영, 광복군 합류)
- 양심적 일본인(기독교)의 도움
케임브리지 출신 다카마스 교수(요시찰인물), 후카다 쿠미

Cf. 일본인 형사의 서명 요구-"문명국의 합법적 절차(국제법)"